

제5주기 이우정 선생님 추모예배 및 제3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일시 | 2007년 6월5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제5주기 이우정 선생님 추모예배 및 제3회 이우정평화상 시상식

일시 | 2007년 6월5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이우정평화상위원회의



| 목차 |

• 행사 순서 · 3

• 인사말씀 · 4

• 주모예배 · 6

• 선정 경과 · 11

• 수상자 공적사항 · 14

• 수상 소감 · 16

• 정대협 소개 · 19

• 이우정평화상 소개 · 20

• 故 이우정 선생님 발자취 · 21

故이우정 선생님 5주기 추모 예배 제 3회 이우정평화상위원회 시상식

1부

추모예배 | 사회 | 한국염 목사

인사말씀 ----- 이문우(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장)

강 연 ----- 김윤옥(평화여성회 전 이사장)

2부

시상식 | 사회 |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수상자 선정보고 ----- 정현백 (이우정평화상 심사위원장)

시 상 ----- 이문우(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장)

축 사 -----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전 정대협 상임대표)

수상소감 ----- 윤미향 수상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3부

평화의식탁

| 인사말씀 |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5년. 선생님을 생각하노라니 선생님의 삶이 파노라마 같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며 지나갑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에서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선생님은 친성적으로 여성적인, 그러나 지성적이고 아주 허약해 보이는, 짧은 교수였습니다.

선생님은 60년대 후반기부터 교회여성들과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여성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1967년에 세계교회여성들과의 연대에 힘입어 당시 교회여성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운동성을 갖춘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설립되고 선생님은 1973년도에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십니다. 이것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생의 전환을 하게 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와 '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서 선생님은 "교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고난의 길은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민하시다가 교수직을 내놓고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70년대는 한마디로 격동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 산업화속에서의 공장근로자들의 노동운동, 유신헌법 철폐운동, 학계, 교계, 언론계, 사회 모든 단체들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 통일을 위한 학생운동 등, 죽음과 감옥, 고문 등,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던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다양각색의 투쟁과 고통의 중심에 항상 제철을 뿐 아니라 그들의 대면자로, 보호자로 계시면서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는 절제로 모든 고난을 도맡으셨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힘겨운 운동의 와중에도 교회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여성신학"과 "여성의식화교육"에 정열을 쏟으셨고, 87년도에는 전보직 여성운동을 결집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여성운동의 대모가 되십니다.

90년대에는 재야운동에서 정치운동가로 변신을 하시는데, 아무리 의식이 좋아도 제도와 법적개혁이 없이는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여성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신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성문제는 물론, 약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개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셔서 "남북여성성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평화여성회"를 창설하여 통일과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2002년 돌아가시던 날도 "민주화보상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지나온 선생님의 30여년의 역동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격동의 시대와 함께 변화하시면서 역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셨지만 선생님이 남기신 업적과 공로는 후대에 기려 전수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의 5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5년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5월 17일에 57년 만에 개통된(시운전이지만) 역사적인 '남행열차'나 '북행열차'를 타보셨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성평화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세 번째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늘 시상식을 합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윤대향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우정선생님 5주기 추모예배와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평화여성회의 김장수 대표, 김현희 사무국장, 변숙진 간사에게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5일 위원장 이문우

인도 | 한국염 목사 추모 예배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소서.

회 중 : 아멘, 오늘 평화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우정선생님의 5주기 추모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소서.

찬송 ----- 주님의평화가 ----- 다함께

1. 당신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섰게 하소서
2.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섰게 하소서
3.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섰게 하소서

공동기도 ----- 다 함 계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저희의 길이 되신
이우정 선생님을 추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선생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주신

그 고귀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성들을 위해, 힘없는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을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선생님이 물려주신 많은 유산 가운데
평화와 정통과 정의의 물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의 길, 사랑의 길을 쉬이 깨달았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선생님의 자취를 조금씩 잊어갔지만
선생님께서 생전에 주신 고귀한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자매애와 형제애로 연대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사이,
나라와 민족사이의 막힌 담을 헐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선생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게 하소서. 아멘

말씀읽기 ----- 누가복음4: 18-19 ----- 인도자

말씀 ----- 김을옥선생
"이성평화운동과 이우정선생님"

명상 ----- 이우정선생님께 ----- 윤수경선생

이름처럼 어수룩하시고
이름처럼 끝으시기만 하신 선생님
선생님은 세상이 우리러보는 가치관에는 어수룩하시고 하늘나라 진리에는
관난처럼 예리하고
참대처럼 끝으십니다.

진정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슬기로우신,
진정 물욕을 떠나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상 받을 마음 없이 사물이 무크익어
비둘기 알 품듯 살하고 깃잡힌 무리를 어루만지고 실망한 영혼에 믿음주시며
여동속에 빛 보이시며
아름 속에 기쁨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려려 선생님은 낮은 대로만
절로절로 흘러가는 시냇물이십니다.
대지의 깊은 상체가 용령이 찾아가
소복히 고여 흙탕 가라앉히고
맑은 하늘 푸른 빛만 반영시키는 호수이십니다.
꼭마른 자에 냉수 되시고
혹서에 짓눌린 고달픈 심신에

청량한 후식 주시는
선생님의 생애는 가시밭과 계곡
독사들의 전당 이기시고 또 이기신 풀 숲이십니다.

온갖 악의 세력이 혼란 빚어내는 암흑의 역사에서
힘 있게 솟아오는 여명의 도래를 부르짖으시기에
꺾임 없이 타협 없이 외골수로 지키신
믿음 소망 사람이십니다.
꿈으로 믿음과 시련의 연륜 속에서
무브익은 위대하십니다.

진경호 선생님은 뒤이을 못 후손에게 본 보기 이시기에
우리 다 선생님 따라
새 매우살렘 새 세계 새 여성 새 인간성 꿈꾸며
몸 바쳐 일할 것 다짐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
참 삶으로 하는 사랑의 선택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 이선애 -

함께 부르는 노래-----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 ----- 다 함 제

1. 당신은 하늘의 사람 사랑의 노래를 갖고 온 이
당신은 땅의 사람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
잠든 이들을 깨우고 평등세상을 여는 이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는 이

2. 당신은 하늘의 사람 정의의 노래를 부르는 이
당신은 땅의 사람 자유의 아침을 여는 이
몽인 이들을 풀고 해방세상을 여는 이
새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속에 우뚝 서 계시는 이

3. 당신은 하늘의 사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
당신은 땅의 사람 죽은 것들을 살리는 이
봉탄의 사슬을 끊고 통일세상을 여는 이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이

축도 ----- 이해동복사



일본군 위안부운동의 주춧돌을 쌓고, 전쟁이 가하는 여성인권문제를 부각하는데 크게 기여한 윤미향씨를 선정하며

| 정헌백 | 이우정평화상 심사위원

이우정 평화상 제3회 수상자로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여성운동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여성인권 이슈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제는 작은 도시가 되어 버린 독일의 본(Bonn)을 방문하였다가, 나를 찾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석사논문용을 쓰겠다는 옛된 두 여대생을 만나면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는 세계인의 과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2년 보스니아에서 적군에 의한 자행된 조직적인 집단강간문제와 함께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전율할 만한 폭력과 그것이 얼마나 평화형성을 저해하는 일인가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정대협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국여성운동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병든 몸을 이끌고 거리로, 미 의회로, 일본으로 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온 피해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의 노고와 열정을 높이 치하해야 하고, 치하해 왔습니다.

이를 넘어 이제 우리는 1992년 정대협의 초창기부터 묵묵히 일하며, 갖은 고생을 감내한 숨은

여성운동가들의 모습도 가시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여성운동은 어느 한 인물보다는 집단적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렇더라도 10여 년의 세월을 이를 위해 몸바치온 인물, 간사-사무국장-사무총장을 거쳐 이제 상임대표에 오른 한 여성의 수고롭고 고생스런 삶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윤미향씨는 1992년부터 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와 여성재단에 근무하였던 시기를 제외하자면, 그는 정대협 역사와 산 증인입니다. 이미 700회를 훌쩍 넘긴 수요시위 날에는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윤미향씨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또한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이를 따라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윤미향씨. 고단한 해외여행과 해외 동조세력의 활성화 등, 그 어디에도 윤미향씨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없다면, 윤미향씨는 이 어려운 과제를 감당해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윤미향씨는 피해 할머니들이 좀 더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쉼터 '우리 집'을 개소하는 데에도 기여하였고, 할머니들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할머니들의 증언과 참석이 필요한 곳이면 국내나 해외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윤미향씨의 활동이 귀한 이유는 그가 단지 피해할머니들의 복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평화운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활동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대협운동은 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인권운동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평화운동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07년에 우수정평화상을 윤미향씨에게 수여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정대협운동이 새로운 과제 설정과 더불어 한 단계 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전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정대협은 여성이 겪은 과거의 아픔, 전쟁이 여성에 가하는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미래세대의 평화와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운동입니다. 미래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더 이상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여성만의, 혹은

한국 여성운동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 건립할 이 박물관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여성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인 모두의 전유물이자 메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정대협은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심찬 계획만큼이나 정대협은 많은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비 모금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정대협과 상임대표를 맡은 윤미향씨의 어깨에 이 모든 과제들이 얹혀 있습니다.

굳이 지금 그에게 이우정평화상을 수여하려는 것도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정대협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누구보다도 '평화만들기'를 위해 앞장 서 오신 이우정선생님을 기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우정평화상의 의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은 윤미향씨에 대한 격려에 못지않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평화만들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확인합시다!

▶▶▶ 2007년 제3회 이우정평화상위원회의 심사위원

이문우 - 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장

김상근 - 민주평통 부상임의장, 기독교강요회 목사

정현백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한홍구 -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성공회대 교수

이대훈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정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사에서 이제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산증인이자 대표적 활동가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꿈을 안고 자라났던 그녀는 사회의 부정의한 현실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여성과 약자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8년 세계기독교교회 연맹 제22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여성분과 간사로 그녀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회여성운동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표적 활동가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막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수많은 조선의 식민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납치·유괴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이 땅에 처음 불거져 나오기 이 문제해결을 위해 1990년에 정대협이 결성되었습니다. 윤미향은 1992년부터 그 곳에 있었습니다. 실무자는 윤미향 혼자였습니다. 여성을 위한 목회의 현장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선택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무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미향은 피해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윤미향은 생존자들이 좀 더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정대협 옆에 위치한 협터 '우리집'을 개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현재 실무자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생존자들이 거주하고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복지활동의 중점을 생존자들이 운동의 혜택만을 받는 위치가 아닌, 여성들과 함께 운동하는 주체로 인식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 가지 쟁쟁한 기획과 구상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의 다양한 이슈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정대협의 소식을 꼼꼼히 알리는 활동보고까지 차치해 시민운동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자제로 가야 하는지를 실천하느라 밤낮도

없이, 후일도 반납해 가며 헌신적으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문제로, 전시하 여성에게 자행된 성폭력문제로 알려나가는 일에도 열정을 다해왔으며, 이 운동을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역사를 통해 여성들이 전쟁에서 겪은 아픔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평화와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세계 시민들과 여성들이 연대할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도 모금함을 들고 실무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깊은 트라우마를 6년 동안 감당하며 그녀 자신 역시 온갖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4년간 정대협을 떠나 있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도 통일과 여성에 관련된 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몸담아 통일운동에 여성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는가 하면 한국여성재단의 정착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위치를 가졌다고 안주할 수도 있었을 그 시기에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돌아와 정대협의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제여론을 확산해 나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그녀들과 세상으로 환절음씩 나오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과 시민들과 어우러져 문제해결을 외치는 수요시위가 긴 싸움의 시간에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항상 '희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윤미향 대표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윤미향 대표를 만나고 나서 우울하고 슬프게만 느껴질 줄 알았던 시위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돌아간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있음직한 자리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윤영' 부터 찾는 할머니들 속에 윤미향 대표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덕경 할머니의 임종 앞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려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에서 그녀의 맘방울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나이 가 전시 하 여성폭력을 뿌리 뽑고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실현을 위해 묵묵히 외길을 걸으며 오늘도 희망을 일구고 있는 그녀의 삶은 평생을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에 투신했던 이우정 선생님의 삶과도 닮아있다고 믿습니다.



수상소감

| 윤미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제가 존경하는 이우정 선생님, 그 분의 뜻을 기리고 살리는 '이우정 평화상' 수상자에 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제 입에서 나왔던 단어는 "최송스럽습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일어난 무슨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망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하인사를 받으면서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이우정 선생님은 평생을 쫓기는 자들의 은신처로, 분단으로 찢기고 상처입은 사람들의 가슴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몸을 불사르셨던 분이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기 위해 몸소 몸으로 실천해 내었고,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 한 가운데에서 제쳤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시면서 최후단 가스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공권력의 폭력에 대항하여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우정 선생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마음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셨던 분이시기에 혹여나 제가 '이우정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 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품었던 뜻과 정신에 해를 입히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을 정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정대협 간사로, 사무국장으로, 총무로 일하면서 상처도 많았지만 제 자신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표현에 따르면 젊은 사람이 할머니들과 같이 쉬어서 살다보니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을 정말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속고만 사셨고, 피해만 입으셨던 할머니들이 당신들을 위해 활동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저를 검열에 고소를 하였을 때도 그것도 저 자신에 대한 훈련이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아프다 소리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그 기억들과 상처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들의 삶, 그 삶을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다 소리칠 수 있었지만, 그 분들은 소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정대협을 몇 년 동안 떠나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안부' 문제에서 멀어져 있으니 행복하더군요. 제 마음을 끌어대는 소리들도 없었고, 제 심정에 화를 돋울 일도 없었습니다. 모처럼만에 가족과도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복이 아니었으나 합니다. 제 복은 정대협에 있었나합니다. 2002년 당시 상임대표였던 지은의 선생님한테서 다시 정대협에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대협 사무처장으로 복귀하였을 때 참으로 시선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1997년도의 약봉이 시작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한 피해자 할머니로부터는 "정대협이 이제 경제적으로 살만한가보지? 다른 곳에 갔던 윤미향이가 이제 돈이 필요했나? 그래서 돈벌러 온 건가?" "바보같이 이 끝지 아픈 곳을 알면서 또 뭣 하러 왔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처입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충분히 전달될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할머니들과의 못다 이룬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말로, "친정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신세라서,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결혼준비에 쓰라고 주는 거야"라며 손에 하얀 봉투를 쥐어주었던 고 강덕경 할머니. 결혼 후 5개월 28일 만에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했을 때 함께 면회를 가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에 주던 고 김순덕 할머니, 고 박두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오히려 통일문제에도,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강덕경 할머니의 마지막 생의 몸부림 앞에서 제가 계속할테니 저를 믿고 편히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누가 저에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세계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보시던 할머니들이 해맑게 웃으시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멋진 선생님이요, 멋진 언니로, 따뜻한 할머니로, 적극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낸 할머니들이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이를 통해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도전의식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분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정대협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효재 선생님과 윤정옥 선생님, 님들이 앞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지고 제게는 버겁기까지 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이 소중한 멋진 상을 주신 이우정 평화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만하지 않고, 늘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비판하면서 이 상에 어울리는 삶, 이 땅의 평화와 정의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6. 김순덕

정신대협회

| 소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지난 13년간(1990년 11월 설립) 전시 여성 폭력의 극심한 피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해 온 단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하의 조선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성들 10-20만 명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잔악한 범죄였습니다.

정대협은 정신대-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하여금 1. 진상규명, 2. 범죄인정, 3. 국회결의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 교과서 기록, 6. 위령비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와 인종차별의 문제, 계급의 문제로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통해 오늘날에도 무력 갈등과 전쟁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울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요시위는 국내외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져 일본정부를 향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2007년 6월 현재 763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대협은 일제 치하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군대 위안소에 감금되어 군인들의 성적 노예가 되었던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고발하고, 생존자복지(재가자원봉사, 심리치료,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사업 등),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전시 폭력에 관한 각종 자료, 증언 녹취, 영상, 사진 자료 등), 교육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기회 교육과 방문자 교육), 해외협력(시위, 각 단체연대활동), 국제협력(UN, ILO 활동) 등의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정평화상 소개

1.

'이우정평화상'은 평화운동의 선구자요, 여성 인권운동의 대모요,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도자 이었으며, 우리 사회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사셨던 고(故)이우정 선생님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내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2.

전쟁과 분쟁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여성 및 단체, 남북화에 및 평화 형성과 분단극복을 위해 노력을 한 여성 및 단체, 화해·치유·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여성 및 단체를 수상자(단체)로 하며, 상금은 '이우정평화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이우정평화상'은 매년 5월 30일(이우정 선생 기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4.

'이우정평화상위원회'는 이우정평화상 후원금을 기부한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5.

'이우정평화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중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우정평화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 합니다

6.

운영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우정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추천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확정합니다.

故 이우정 선생님 발자취

1923년 8월 1일 이학주 씨와 윤학경 여사 사이에서 태어나시다.

- 1936 : 서울 덕수 초등학교 졸업
- 1940 :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48 : 한신대 전문부 졸업
- 1951 : 한신대 본과 졸업
- 1951-1953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임마누엘 대학 수학
- 1993 :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 대학 명예 문학박사
- 1953-1970 : 한국신학대학교수
- 1971-1972 : 한국기독교교육협의회 교육부장
- 1972-1974 : 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전국 연합회 베다니 평신도 교육원 원장
- 1974-1976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973-1977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1977-1981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회장
- 1978 : 통일방직사건 긴급 대책위원회의 실행위원 원종모방 노동자조합 대책위원장
- 1978-1981 : 한국기독교학생회 이사장
- 1980 : '동일방직해직노동자 복귀추진위원회' 실행위원
- 1982 : 한빛교회 장로 임직
- 1984-1985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회장
- 1985-198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장
- 1985-1992 : 세계교회협의회(W.C.C.) 선교위원회(C.W.M.E.) 부위원장
- 1987-1990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1-2002 :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문
- 1990-1992 :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부회장

- 1991-1993 : 신민당 수석 최고의원
- 1992-1996 : 대한민국 국회의원
- 1994-1996 : 대한민국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6-2002 :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 1997-1999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수석대표
- 1998-200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1998-2002 : 대통령 통일 고문
- 1998-2002 : 제 2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 1998-2002 : 통일부 민주평통자문위원
- 1998-2002 : 의회를 사랑하는 여성모임 고문
- 1999-2002 : 장묘문화개혁위원회 공동의장
- 1999-2002 : 정치개혁위원회 고문
- 2000-2002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2000-2002 : 민주화보상위원회 위원장

수상내역

(1) 각종 상 수상

- 1976. 11 미국의 Christianity and Crisis 인권상 수상
- 1995. 4 한신대학교 한신상 수상
- 1996. 12. 일본 아시아 인권상의 여성 인권상 수상
- 1997 아시아인권기금상 수상
- 1999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 공로패 감사패 수상

- 1981. 6. 1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노회 전국연합회
- 1983. 9. 27 원광모방 노동조합을 위한 대책위원회
- 1990. 2. 3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0. 6.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991. 5. 13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 1992. 6. 2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3. 11. 3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1993. 7. 5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1995. 11. 4 민주연합청년동지의 중앙회
- 1995. 12. 6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 1996. 1. 백범 김구 선생 살해 진상규명위원회
- 1998. 2.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8. 5. 15 한겨레신문사

▶▶▶ 이우정평화상 후원금 참여안내

국민은행 454101-01-011492 예금주 이문우 (이우정평화상)

하나은행 126-910045-86707 예금주 이문우 (이우정평화상)



이우경평화상위원회

136-035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54번지 2층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내 이우경평화상위원회
02-929-4846~7 Fax 02-929-4843
E-mail : wmp@peacewomen.or.kr